

코로나 관광 위축 여파에도 고흥 관광객 늘었다

전국 18% 감소에도 '청정 고흥'은 되레 6% 증가 고흥찾은 수도권 관광객 신한카드 사용 25% 늘어

고흥군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2020년 신한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지역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이 2018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의 카드 소비액이 25% 증가한 것은 구매력을 가진 가족단위 청장년층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증가율은 강원 고성(47%)과 양양(44%)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는 신한카드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의 2021년 소비 트렌드를 '리밸류(re-value·재평가)'로 선정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고흥지역 방문자 수도 전년대비 6% 늘

었다. 이는 전국 4번째 증가율이다.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18% 감소했는데도, 고흥지역은 오히려 방문객이 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명 관광지보다는 청정지역 이미지가 강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흥지역은 지난해 개통한 팔영대교, 우주발사 전망대, 남해안 유일 서핑지인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청정관광지로 인식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상심하고 맛있는 각종 농수축산물도 더해져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흥지역 관광객 수가 6% 증가했다. 사진은 고흥 나로도 숲섬. <고흥군 제공>

관광객 증가로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장 등의 이용이 늘어 군민 관광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흥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청정 고흥'의 장점을 살린 관

광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관광 1번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국경 기자 gjuu@kwangju.co.kr



지난해 순천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한 청장년 8명이 맥가이버 공작소에 입주했다. <순천시 제공>

상생 귀농·귀촌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 확대

다음달 9명 추가 선정

순천시는 올해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남인구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행한다. 맥가이버 사업은 순천시 읍·면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50세 미만의 청·장년이 맥가이버 공작소에 거주하며 홀로 사는 노인,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주는 지역 상생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맥가이버)에게는 5년간 주거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약 185만원을 지급한다. 또 맥가이버 활동을 위한 교

육(수도, 전기, 농기계)과 귀농·귀촌 및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지원받는다. 순천시는 올해 기존 맥가이버 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맥가이버 양성공간인 '공유대장간'을 설치해 맥가이버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교육 등 활동 방향을 다변화해 순천형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명의 맥가이버가 월등·상사·별량 등 8개 마을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만능재주꾼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순천시는 3월 중 9명의 추가 맥가이버를 선정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사회책임지수 전남 시·군 중 1위

'삶의 질', '여건·책임' 높은 점수 전국 지자체서도 상위권 차지

광양시가 '사회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남지역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한국CSR연구소와 넥스트데일리가 공동 주관한 '2021 대한민국 지자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점 660.67점을 받아 전남지역 시·군 가운데 1위를 랭크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었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전국 지자체가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

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에서 '4만명 미만'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눠 평가했다.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를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BL(경제·사회·환경성) 모델에 바탕으로 '삶의 질'과 '여건 및 책임'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건강(104.33점) ▲문화(23.33점) ▲안전(114.67점) ▲주택(21.33점) 등 '삶의 질' 평가지표에서 450점 만점에 263.67점을 받았다. '여건 및 책임' 부문 평가에서는 ▲인구(116.67점) ▲북

지(41.33점) ▲상하수도(11점) ▲폐기물(4점) ▲재정(84점) ▲온실가스(110점) ▲사회영향평가(30점)에서 550점 만점 중 397점을 획득했다. 광양시는 앞서 지난달 '2021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전남 1위, 전국 29위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정형복 광양시장은 "시민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상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지표에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청년·은퇴자까지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과 유지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수해로 집 잃은 가정에 새 보금자리 신축

지역사회·공동모금회 등 후원

지난해 8월 곡성지역에 내린 폭우로 집을 잃은 가정에 사회 곳곳의 후원이 더해져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수해로 허물어진 곡성읍지역 주택 1채를 신축해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신축은 지역후원금과 공동모금회매칭 지원금, 국제위러브유 운동본부 기부금 등 다양한 곳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곡성을 수해 가구 중 피해 정도와 가정형편 등이 고려돼 가장 절실한 가구가 선정됐으며 총 면적 49.5㎡ 규모로 신축됐다.

지난해 8월 곡성지역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일부 마을의 주택은 산사태로 붕괴됐고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인근의 마을 회관으로 긴급대피했다. 이 중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집중호우로 기둥이 기울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었고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택을 지원받은 A씨는 "비가 멈춘 뒤 다시 찾은 집은 금방 붕괴될 것 같아 불안했다"며 "새로운 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곡성군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집을 잃은 가정에 지역사회 곳곳의 후원이 더해져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곡성군 제공>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